

■ 광주·전남지역 병의원 잇단 휴·폐업 왜 ?

대형병원에 환자 빼앗겨 '경영난'

최근 180 병상의 곡성 S병원 이 70억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영권을 새 주인에게 넘겼다. 광주 W병원(200 병상)도 200억원대 이상의 부채에 시달리다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올 들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목포 J병원 등 의사 2명이 자살했다. '의사=부유층'이며, 병원은 우리 사회에서

업 중인 요양기관은 8천156곳. 하지만 이중 ▲병원 6 ▲의원 59 ▲치과병원 9 ▲약국 47 ▲한의원 6곳 등 전체의 17.3%인 141곳이 문을 닫았다. 광주의 경우 ▲병원 2 ▲의원 26 ▲치과 1 ▲한의원 6곳, 전남은 ▲병원 1 ▲의원 13 ▲치과 3 ▲한의원 6곳이 폐업했다. <표> 병의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광주, 전남·북 요양기관 폐업 현황

Table with 5 columns: Year, Type, City, Closed, Total. Rows for 2006 and 2007, categorized by Hospital, Clinic, Dental, and Pharmacy.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18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문제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당수 중소 신설 병의원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병의원들이 오는 21일 집단휴진을 하고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에 나서서 것도 그나마 적은 '밤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

된 것이다. 광주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놓여 촌 인구 감소와 환자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중소병원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통과되면 휴·폐업하는 병의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국내 의료법인 환자 수 격감으로 J병원은 ▲금융권 빛과 의료기 리스대금 100억원 ▲약값·급식비 등 외상 40억원 ▲영안실·식당 등 임대보증금 15억원 ▲사채·세금 체납 등 170억~

올 광주 35·전남 23곳 문 닫아  
거액 빚얻어 개업...채무 눈덩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이라는 사회 통념을 깨뜨려버린 사건이었다.

광주·전남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초대형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지역환자의 20% 이상이 서울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자신이 취약한 병원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환자들도 이제 의료비의 많고 적음에 앞서, 병원 규모·의료진 수준·첨단기기도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병원을 찾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이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광주와 전남·북에서 개

적인 이유는 환자 수가 격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이 자살한 목포 J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 등 10개 과목에 중환자실을 포함한 200 병상(지하 1층·지상 7층)을 갖춘 목포지역 5개 종합병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입원환자가 10명을 넘지 못하자 의사 3명만 남아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병원의 불황을 გადა 경정에서 찾고 있다. 휴·폐업하는 병의원보다 많은 병원이 새 로 문을 열거나 대표자 변경 형태로 개업을 하고 있어 '환자 나눠먹기'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 주의 경우 올해 '지장'(기호부여·대

표자 변경 또는 개인) 병의원·치과·한의원이 36곳으로 폐업 수(35곳)보다 많았던 것도 이를 반증한다. 의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무차별 개업을 선호하는 것도 경영난을 부채질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목포 J병원의 경우 병원 설립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금융권 및 투자자로부터 끌어왔으며, 실제 투입된 자금은 3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중한 채무 부담에다 환자 수 격감으로 J병원은 ▲금융권 빛과 의료기 리스대금 100억원 ▲약값·급식비 등 외상 40억원 ▲영안실·식당 등 임대보증금 15억원 ▲사채·세금 체납 등 170억~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

면세 휘발유 탈색 가공  
일반 휘발유 속여 판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 은 15일 검은 색을 띠는 어음용 면세 휘발유를 탈색한 뒤 일반 휘발유처럼 유통시킨 고모(36·전북 김제시)씨 등 3명에 대해 장물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면세유 1만9천200ℓ (2천 500만원 상당)를 탈색시켜 일반 휘발유 유로 속여 팔아 1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어민용 면세유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일반 휘발유와의 구별을 위해 색소를 투입 검은 색을 띠고 있는데, 고씨 등은 솜으로 정제하는 방식으로 면세유의 색깔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학교 급식소 위생 점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15일 보건환경연구원 및 각 구청과 합동으로 일선 학교 급식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복 공동구매 단체  
업체서 돈 받은 의혹

광주중소교복업체 주장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하고 있는 한 소비자단체가 업체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며, 특정업체 간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중소교복업체(대표 김강석)들은 15일 "광주지역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하고 있는 모 소비자단체가 공동구매참여업체들로부터 수수료(총액의 0.3%) 명목으로 수년째 돈을 받아왔고, 입찰참가비와 연회비 명목으로 업체당 80만원을 거두 사무실 임대와 집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동구매에 참여했던 A업체 K사장이 지난달 27일 참고 교육부에도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소비자단체 원장에게 차관 기증금, 단체 설립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챙겨줬으며, 계속되는 금전요구에 못 이겨 공동구매에서 탈퇴하게 됐다'고 폭로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업체들은 또 "광주시내 40여 개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이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광주시내 30여 개 교복업체 가운데 4개 업체만 공동구매에 참여시켰으며, 이들 4개 업

체는 지난해 4월28일 25개교에 대한 공동구매 입찰에서 5~7개교씩 낙찰 받는 등 사실상 공동구매를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교복 공동구매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부모 및 학생, 교사와 학교 간 민주적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비자단체 원장은 이에 대해 "현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11개 업체 중 일부는 친·인척지간이고, 근거도 없이 뒷돈거래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동구매 권한을 소비자단체로부터 넘겨받아 실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성명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무근"이라며 "중소교복업체 대표 김모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광주에서는 중학교 78개교 중 37개교(47.4%), 고등학교 59개교 중 9개교(15.3%) 등 전체 중·고등학교의 33.6%가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60개교, 고등학교 32개교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나원침 (7078) 김장동



광주광역시 중구... 광동초등학교... 062-367-9000

오토바이서 휘발유 훔친 10대 '덜미'



10대 소년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의 연료 호스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휘발유를 빼돌렸다. 폐쇄회로(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1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차모(16)군 등 4명은 지난 11일 새벽 3시경 순천시 조례동 S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외국인 영아 강사 C(31)씨의 오토바이의 연료 호스를 절단, 휘발유를 꺼내는 등 3회에 걸쳐 모두 7.5ℓ의 휘발유를 훔쳐 다는 것.

경찰은 CCTV에 찍힌 동영상을 토대로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군을 추궁한 결과 친구들과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들이 빼돌린 휘발유는 음료수 페트병 5개 용량(시가 3만원)인데, 경찰은 훔친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훔친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담임교사가 왕따 지시해 전학  
나주서 초등 학부모 주장...인터넷 '시끌'

담임교사가 왕따를 지시해 초등학교 졸업 일주일일 앞두고 전학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학부모 A씨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인 자신의 딸이 지난해 나주 J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었던 C교사 때문에 졸업 일주일일 남겨두고 전학을 하게 됐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http://media.daum.net)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C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자신의 딸과는 말도 걸지 못하게 하고 놀지도 말도록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C교사는 딸을 전학시켜야겠다는 A씨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딸에게 "전학 할 학교가 없네, 안 나 올 줄 알았는데 또 나왔네" 등 공개적으로 왕따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졸업 일주일일 남겨 두고 딸을 광주로 전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연이 지난 14일 '왕따를 더 왕따시킨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지자 단 하루 만에 네티즌들의 조회 수가 8만여 건에 달하고 관련 리플(댓글)만도 수천여 건에 이르렀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Large advertisement for Joy-Triple (조이트리플) featuring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details about various real estate projects and services offered.